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대처과정

후배 심한 말, 꼬투리 잡기, 불공정한 업무분담 등 괴롭힘으로 느껴

선배 힘든 업무하면서 후배 가르쳐야 하는 부담에 자극적인 행동

괴롭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때 이직 선택 업무 능숙해지고 적응 성공해도 상처는 남아 어느 순간 괴롭힘 대물림하고 있는 악습 없애야

간호부 차원에서 조직문화 개선 노력해야 신입간호사 실무능력 향상 체계적 교육 필요

간호사가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핵심범주는 '애증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남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과정은 현실직면기, 시행착오기, 관계형성기, 해소기 4단계로 도출됐다. 이는 강제연 동아대 간호학과 교수와 윤선영 연산대 간호학과 교수의 연구논문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에서 제시됐다. 한국간호과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JKAN 2016년 4월호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험이 있거나, 괴롭힘을 목격했거나, 가해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및 개인 면담을 실시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현실직면기= 후배간호사들은 선배간호사가 업무 중 소리를 지르거나 심한 말을 할 때, 없는 사람 취급할 때, 불공정한 업무 분담, 꼬투리 잡기, 망신주기, 뒷담화 등을 괴롭힘으로 받아들였다. 괴롭힘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다.

선배간호사들은 자신의 업무도 힘든데 동시에 후배를 가르치고 공동체임을 저야 하는 상황에서 자극적인 말과 행동이 표출됐고, 가르침이 괴롭힘으로 변질됐다고 생각했다. 긴장된 상태에서 일해야 하는 간호업무의 특성, 위계적이고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간호사들은 괴롭힘 속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자책했으며,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일부는 이 시기에 이직을 선택했다. △시행착오기= 후배간호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견뎌냈다고 말했다. 선배간호사의 얽힌 가르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리 공부하기, 솔선해서 일하기, 살갑게 말하기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고군분투했다. 이 시기에 선배나 동료의 지지, 수간호사의 중재,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간호부의 노력 등 조직차원의 지원이 있을 경우 후배간호사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다양한 전략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변화가 없거나,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후배간호사들은 이직을 고려했고, 병원을 그만뒀다. △관계형성기= 마음을 열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데 성공하게 되자 간호사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후배간호사들은 '많이 힘들지'와 같은 선배간호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긴장감이 녹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병원 이외의 곳에서 선배와 식사나 대화를 하며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선배간호사들은 업무에 익숙해져가는 후배를 보며 자신이 상처를 주는 말을 했던 것을 후회했고, 후배의 힘든 점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해소기= 후배간호사들은 업무를 능숙하게 해내기 시작하면서 괴롭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적응과 대처과정을 통해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괴롭힘은 상처로 남았다. 선배가 된 후, 어느 순간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방법대로 다시 후배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괴롭힘의 대물림 악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구팀은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업무환경과 같은 복잡한 조건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직문화를 관계지향적으로 개선하고, 신입간호사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koreanurse.or.kr

경북간호사회 원로 간담회 열어

경북간호사회(회장·윤난숙)는 원로 간담회를 9월 7일 개최했다. 정문숙·도복늬·구본순·김인숙·오현숙·박성순·고순희 경직 경북간호사회회장과 박경례·신명애·김옥환 원로회원, 윤난숙 현 경북간호사회장이 참석했다. 윤난숙 회장이 경북간호사회 올해 주요사업과 진행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오는 11월 5일 개최 예정인 간호사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도청 이전지(안동·예천신도시)로 간호사회 회관을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호계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로들은 "간호사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돼 감개무량하고,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을 논의했다. 간호계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로들은 "간호사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돼 감개무량하고,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부산시간호사회 중소병원 간호부서장 간담회

부산시간호사회(회장·이영은)는 '중소병원 간호부서장 간담회'를 9월 6일 개최했다. 중소병원 간호현장의 현안과제를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 간호사 확보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소개도 진행됐다. 이영은 회장은 "중소병원의 고 김숙현 기자 shkim@



중소소와 발전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부산시간호사회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간호사회 사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shkim@

서울시간호사회 '서울간호학술대회' 개최

서울시간호사회(회장·김소선)는 제9회 서울간호학술대회를 '생명윤리와 간호' 주제로 9월 27일 개최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대상은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utomated Sepsis Risk Assessment System'(백지선·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수상했으며,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 3편(상금 각 70만원), 우수상 5편(각 50만원), 장려상 5편(각 30만원), 김숙현 기자 shkim@



포스터상 22편(각 10만원)이 선정됐다. '생명윤리'(정재우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의료실무윤리'(백제중합병원 산업의학센터 예방의학과장)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김숙현 기자 shkim@

보완대체요법간호사회 '간호실무 위한 보완대체요법'

한국보완대체요법간호사회(회장·이재은)는 '간호실무를 위한 보완·대체요법' 주제 추계학술대회를 9월 23일 개최했다. 간호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보완·대체요법으로 양생, 아로마테라피, 이압요법이 다뤄졌다. '고전문헌을 통한 마음양생과 행복' 강연을 통해 장자, 중용, 노자 등 고전 속에서 다루고 있는 양생에 대해 배웠다. '양생'은 생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건강을 유지하고 정수하기 위한 전통적인 생활양 김숙현 기자 shkim@



식(건강관리법)을 뜻한다. '아로마테라피의 임상적용' 강연에서는 아로마테라피 방법, 오일 종류와 효과가 다뤄졌다. '비만관리를 위한 이압요법' 강연을 통해 이압요법의 원리와 효능 등을 배웠다. 김숙현 기자 sh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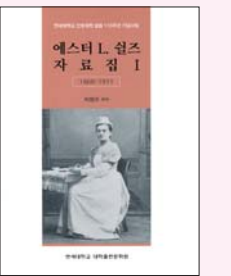


연세대 간호대학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연세대 간호대학 110주년 맞아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 글로벌 리더십으로 건강한 세상 선도

연세대 간호대학 11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가 'Envisioning Nursing 2030 : 건강한 미래를 향한 간호의 비전' 주제로 9월 30일 열렸다. 기념식은 연세대 김용학 총장, 윤도홍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장관(연세대 명예교수), 등문, 교직원, 재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태화 간호대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세대 간호대학은 1906년 쉴즈 간호선교사가 설립해 올해로 110주년을 맞았다"면서 "연세간호가 배출한 지도자들의 헌신이 간호사를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전문직으로 만들었고, 간호대학을 명문으로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들의 이상과 열정을 기억하고 지혜와 해안을 바탕으로 우수하고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 글로벌 리더십 확장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기념사에서 "간호대학 창립 1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간호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환경을 개편하며 오늘의 역사를 써내려간 간호대학이 융합연구 시대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도홍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110년간 이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최고의 간호인재를 길러낸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세계간호를 선도하는 간호대학이 되길 바라며, 의료원에서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간호대학 110년 역사를 담은 기념영상도 상영됐다. 김숙현 기자 shkim@



세브란스간호원양성학교 초대 교장을 지낸 쉴즈 간호선교사와 초대 간호대학장을 지낸 홍신영 박사를 기리는 책이 발간됐다.

창립 1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에스터 L. 쉴즈 자로 집 1'과 '신재 홍신영 : 믿음과 개척의 삶'이 소개됐다. 간호대학 전신인 세브란스간호원 양성학교 초대 교장을 지낸 쉴즈 간호선교사와 초대 간호대학장을 지낸 홍신영 박사를 기리는 책이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보건 의료 환경에 대비해 건강한 미래사회의 구현을 위한 간호의 책임과 역할,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메를 전산초 학교교육재단(이사장·심치선)에서 후원했으며, 전인영 이사가 축사를 했다. △보건의료현황과 간호발전 전략 △보건의료현황과 정책동향 △간호의 사회적 요구와 기대 △SNS 담론 중심으로 △보건 의료실무 동향과 간호실무의 역할 △보건의료 생태계 변화와 간호연구의 사회적 책무 등의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김숙현 기자 shkim@

KNA 면허신고센터
볼센터 1644-1755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대한간호협회 KNA 에듀센터
edu.koreanurse.or.kr

28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사, 위생사, 연세대 RN-BSN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학원
매월 초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심화반>기출문제반>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학원직장을 그대로 활영한 최신 동영상강의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장 연중 무중단 진행
www.yulimgosi.com

2017학년도 보건의교사의 꿈을 실현시키는 강의
신희원 보건교사
10월 각론별 / 11월 실전 모의고사반 현재 서비스 중!
7~11월 영역별 및 최종 모의고사 패키지 및 1~4월 필수이론 패키지 할인 접수 중!
김기영 보건교사
10~11월 실전 서답형 모의고사반 현재 서비스 중!
7~11월 문제풀이+실전 모의고사 패키지 및 1~6월 기본이론 패키지 할인 접수 중!
2017학년도 보건의교사 임용대비 6인6색 교육학 논술
9~10월 실전 모의고사 현재 서비스 중!
11월 핵심정리 및 최종 모의고사 11월 초 개강!
김인식, 이선화, 전태연, 김경림, 오현준, 권자수
www.yulimgosi.com, www.teachspa.com

가능성 특수스판 수술복 스타K
가능성 향균 가공처리 특수 스펀섬유 하이퀄리티 스펀근무복
스타K(스타케이) STAR K HIGH QUALITY
원장님근무복·진료복·간호복·수술복·당직복·근무복·치과근무복·기공사근무복
새롭게 개발된 신개념 스펀팩스 100% 오리지널
가볍고 편안해요!!
● 가벼운 원단으로 활동시 불편함이 없습니다.
●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착용감이 뛰어납니다.
NAVER 신화가운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신화가운"을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주문 환영
본사 및 공장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111-12번지
상담문의 : 010-3200-1420 / 053-555-1315
(주)신화직물, 신화가운, 신화유니폼

압박스타킹 전문 태경 S-K
간호사 특별 할인
베노스 / 잡스타킹
다리가 붓고 피곤할때, 부종, 정맥류 예방
전화 & 카카오톡 010-3244-4131
365일 카카오톡 ID : TSKS11
주문&상담가능 tk-sk.com에 접속해보세요~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3번출구
빕스 우측건물(1층 피자하트, 2·4층학원)